



전국 첫 공공수장고 인력없어 '반쪽 개관' 하나

저지문화마을에 내달 4일 개관 1차 도립미술관 등 129점 이관 1층 다목적실은 전시실로 개방 전담 인력 배치 당분간 어려워 개관기념전 뒷날에 문단을 판

전국 첫 공공수장고인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가 6월 4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마을에 문을 열지만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반쪽 개관'하게 됐다.

제주현대미술관 입구 맞은편에 들어선 공공수장고는 국비(40%)와 도비(60%)를 합쳐 총 82억8200만원이 들었다. 연면적 1931㎡에 지하 1층, 지상1층 규모로 회화·입체 등 수장실 4개를 갖췄고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다. 공공수장고는 제주지역 공립미술

관을 중심으로 수장 작품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건립이 추진됐다. 제주도는 조성 배경을 설명하면서 적정 수장량 대비 수장률이 90%에 이른다고 했다.

5월 22일 현재 1차로 공공수장고로 옮겨온 작품은 제주도립미술관(120점)과 제주도문화진흥원(9점) 소장품 등 129점이다. 2차로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 총무과 소장품 일부를 공공수장고로 가져올 예정이다. 서귀포지역 공립미술관의 경우 기증품이 다수 포함돼 공공수장고 이관이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수장고는 별도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다. 종전처럼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학예사 등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이후엔 상주할 인력이 없다. 개관 당일 수장품 중 제주 작가 작품 10~15점을 뽑아 다목적실에 선보일 예정인데 이튿날부터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다.



6월 4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마을에 문을 여는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전경.

제주도는 당초 "다목적실은 수장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개방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열미술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학예사 1명을 포함 시 설직, 학예인턴 등 5명 배치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그 시기가 6월말쯤 예상돼 개관 후 얼마동안은 문을 닫

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장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성됐지만 마을의 요구에 따라 다목적실만 전시실 등으로 개방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인력 배치 전이라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다 목적실을 쓸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봄날 닮은 시구절 글그림에 담다

제주시인 강영란의 시편들 제주글그림회 감성적 표현

제주 시인이 써내려간 감성적 시구절이 글그림과 만났다. 제주글그림회가 펼치는 '제주시인 강영란과 함께하는 글그림전'이다.

이번 전시는 제주에 살고 있는 순간을 글과 그림에 담아 관객들과 나

누기 위해 기획됐다. 그 첫 전시는 제주 강영란 시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꾸며졌다.

강영란 시인은 1998년 한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소가 허로 풀을 감아올릴 때', '열소가 반 뜰어먹고 내가 반 뜰어먹고' 등이 있고 제5회 서귀포문학상을 수상했다.

제주글그림회는 붓과 먹으로 표현하는 캘리그래피의 한계를 벗어나



제주시인 강영란의 시편에 드러난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한 제주글그림회 작품전.

글이 담고 있는 감성을 여러 빛깔로 소화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참여작가는 캘리그래피오일 대표인 김조은, 일러스트

레이터 최지은, 캘리그래퍼 김현미·오가영,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최명선이다.

이들은 "시인의 삶 속에서 녹아나온 제주에 대한 애정, 눈에 그려지는 듯한 섬세한 표현을 캘리그래피와 그림을 접목해 새로운 시선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제주 문학인들과 협업을 통해 더 폭넓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제주시 아라동 갤러리카페 거인의 정원에서 열린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제주삼화회 서귀포 창립전

제주삼화회가 '동심을 노래하는 그림'을 주제로 이달 25~30일 이중섭 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연다.

출품 회원은 김명희 김우주 김혜숙 손지혜 우지영씨 등 5명이다. 이들은 솜사탕이 된 구름, 수염을 뽀내며 동물들, 노래하는 찌개냄비 등 아이들 세상을 담은 동시에 실린 삽화를 선보인다. 제주삼화회는 동시, 수필 등을 읽고 가슴에 남아있는 감성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문의 010-3209-1259.

양정원씨 5월 작은 음악회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제주에 창작음악을 공연하고 있는 양정원씨가 이달 26일 오후 5시에 작은 음악회를 이어간다.

제주시 삼도2동 '양정원의 제주문화창작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난개발로 제주다움을 잃어가는 이즈음의 현실을 담아낸 '주인이 누게파?' 등을 들을 수 있다. 양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고향 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문의 010-9196-8308.

봉려관 스님 조명 세미나

'제주의 여성리더 봉려관, 향일의 꽃 피우다' 주제 국제세미나가 이달 25일 오후 2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강당에서 열린다.

(사)봉려관선양회가 주최하고 두 옥문도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는 근대 제주불교를 중흥시킨 봉려관 스님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향순 미국 조지아대 교수, 아멜라이드 헤르만 독일 말부르크대 교수, 전혜송 일본 코난대 강사, 심옥주 한국어성독립운동연구소장, 관음정사 문화원장인 혜달 스님이 참석한다.

김만덕객주 문화프로그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달 25일 오후 4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김만덕객주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빙떡 나눔과 '생명꽃밭 사물도끼비와 꽃밭할머니' 공연이 이어진다.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배우 현애란 등이 출연한다. 김만덕객주 문화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마련된다. 제주문예재단에서 김만덕객주 시설물 관리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다. 문의 064)800-9143.

시(詩)로 읽는 4:3 (9)

한라산으로 난 길

김성주

붉은 꽃들이 부산스레 수풀을 헤치며 산을 오른다
붉은 꽃들이 붉은 열매를 남기고 툭툭 진다
붉은 꽃을 따라간 푸른 잎들이 붉은 잎으로 산을 내려온다
모두를 떠나보내고, 산은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는 것이었다

계절이 산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산이 울어 핏줄이 터지고 섬이 젖는 것이었다
새들이 붉은 열매를 물고 날다가, 이따금
그 붉은 빛이 산의 피울음인 것을 알고는 떨구기도 했다

그리고 밤이면 물레
마루로 내려와 우는 아이를 잠재우곤 했는데
산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어제부터
밤새껏 가로등이 눈을 부라리며

보초를 서는 것이었다
부하의 총에 죽은 섬에서 제일 높은 군인이 취임 연단에 서던 날
"삼십만 제주도민 다 죽어도 좋다. 온 섬 다 태워도 좋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렁우렁 연설 소리
한라산을 정복하는 건 남반도의 정상 자리에 오르는 일

날벼락 떨어져 타오르는 불길에 심장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이정표로선
한라산으로 난 길이 상여 길임을 아는지
소름을 떨며 소 울음이 먼저 산으로 간다

오늘, 나는 그 길에 술 한 잔을 리고
때늦은 문상(問喪)염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다

과거 4:3회생자는 '빨갱이', 그 유혹은 '빨갱이 새끼'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한라산으로 난 길은 빨갱이가 되는 죽음의 길이었다. 1948년 5월 6일 제주지역 연대장이 교체되었다. 김익렬(金益烈) 중령을 해임하고 박진경(朴珍景) 중령을 발령하였다. 박진경은 일제 말기 일본군으로서 제주도에 주둔한 바 있다. 6월 18일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 달 열흘 가량 제주도에 머물며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그는 연대장 취임식 때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했다. 박진경은 미군의 인정을 받아, 6월 1일 대령으로 진급하고, 6월 18일 그의 작전 방첩에 불만을 품은 부하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박진경이 암살당하자 미군사령부는 6월 21일 새로운 연대장으로 최경록(崔慶祿) 중령을, 부연대장으로 송요찬(宋堯讚) 소령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일제 때 진투경험을 가진 일본군 준위 출신으로서 미군정 시대에는 나란히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하였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제주대박물관 '제주 고지도' 특별전

제주대박물관(관장 오상학)이 제주대 개교 67주년을 기념해 이달 28일부터 7월31일까지 '제주고지도,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에 제작한 제주도 지도와 일제강점기 측량지도, 해방 이후 급변하는 제주모습을 담은 지도, 서양인이 그린 지도 등 100여점이 망라됐다. 특히 대동여지도(국사

편찬위원회 소장),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주산대총도(국립고궁박물관) 등 국내·외 기관에 소장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도를 만날 수 있다. 특별전은 '조선의 제주, 변방을 넘어서다', '식해방 이후 급변하는 제주모습을 담은 지도, 서양인이 그린 지도 등 100여점이 망라됐다. 특히 대동여지도(국사

백극기자가 haru@ihalla.com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수입/배급 CBS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명랑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왠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땄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단체관람 신청 | ☎ 064.748.7400 | facebook.com/cbscinema | TALK CBS시네마 | 천체관람가